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화설 디명(大明) 숭정(崇禎) 말의 충청도 충주(忠州) 단월 따히 한 사람이 이스니 성은 임(林)이오 일흠은 경업(慶業)이라 어려서부터 학업을 힘쓰더니 일즉 부친을 여회고 조모를 지효로 섬기고 형제 우이하며 농업을 힘쓰니 종족 향당이 칭찬하더라 경업의 위인이 관후하여 사람을 사랑하고 미양 이로디

“남자 세상의 나미 맛당이 ㉠ 입신양명(立身揚名)하여 남군을 섬겨 일흠을 죽벽의 드리울지니 엇지 ㉡ 속절읍시 초목갓치 석으리오”

하더라.

[A] 이러구러 십여세 되미 밤이면 병서를 일고 나지면 무예와 말 달이기를 일습더니 무오년의 이르러 나히 십팔세라 과거 기별을 듣고 경수의 을노와 무과 장원하여 즉시 전옥 주부 출육하니 어스흔신 계화 청습의 안마 추종을 거느려 디도상으로 향하니 도로 관광지 그 위풍을 칭찬 아니리 업더라 삼일 유가를 맞친후의 조정의 말미를 어더 고향의 도라가 모친게 뵈오니 부인이 옛일을 추감하여 일회일비하며 인니 친을 모화 즐긴후의 직스의 나아갓더니 삼년 만의 빅마강 만호(白馬江萬戶)를 하여 임소의 도임한 후로 빅성을 사랑하여 농업을 권하며 무예를 가르치니 일노부터 빅마강 ㉢ 선친(善治)하는 쇼문이 조정의 밋쳤더라.

츠시 우의정 원두표 탐전의 주왈

“신이 듯조은 즉 마산성은 방어 중지라 성 이 ㉣ 퇴락(頽落)하여 형용이 엇다 하오니 지조 잇는 사람을 보니여 슈보함이 맛당할가 하느니라”

상 왈

“그런 사람을 경이 천거하라”

우의정이 다시 주하되

“빅마강 만호 님경업이 족히 그 소임을 당하리로소이다.”

상이 즉시 경업으로 천마산성 중군을 제슈하시니 경업이 유지를 밋잡고 진졸을 ㉤ 호계(犒饋)할시 모든 토졸이 각각 주찬을 갓초아 드리논지라 경업이 친히 잔을 잡고 왈

“니 너희게 은혜 끼친 비 업거늘 너희 등이 나를 이갓치 위로하니 니 진솔노 정을 표하노라”

하고 잔을 드러 권하니 모든 진솔이 잔을 바드며 스레 왈

“쇼졸 등이 부모 갓튼 장슈를 일조의 원별하오니 적지 조모를 일흠 갓도소이다”

하고 멀이 노와 하직하더라.

경업이 경성의 을노와 이조판서를 본디 판서 왈

“그디의 아름다운 말이 조정의 들이미 니 우상과 의논하여 탐전의 알원 비라”

하거늘 경업이 비스 왈

“쇼인 갓흔 ㉥ 용재(庸才)를 나라의 천거하와 뉘흔 벼슬을 하이시니 황감 무지하여이다”

하고 인하여 입궐 스은하은 후의 우의정께 뵈온디 우상 왈

“드른 즉 그디 지죄 만호의 오리 두미 앓가온고로 조정의 천거한 비니 밋비 내려가 성역을 사속히 성공하라”

하거늘 경업이 비스 왈

“쇼인 갓흔 인스로 중임을 능히 감당치 못할가 하나니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고 천마 산성의 도임한 후의 성을 도라보니 쥔련히 슈축하기 어려온지라 즉시 장계하되 장정군을 발하여 슈축하를 청하디 상이 즉시 병조의 하교하스 근장한 군스를 턱출하여 보나시니라.

[B] 이찌 경업이 군수와 빅성을 거느려 성역을 할시 쇼를 잡으며 술을 비져 미일 호케하며 친히 잔을 권하여 왈 “니 나라 명을 밋조와 성역을 시작하니 너희는 힘을 다하여 부즈러니 하라”

하고 빅마를 잡아 피를 마셔 미맹세하고 다시 잔을 잡아 왈

“나는 여등의 힘을 비러 나라 은혜을 갓고져 하노라”

하고 침고 더우며 괴롭고 갓부를 극진이 염녀하니 모든 군졸이 불승 감격하여 제 일갓치 진심하논지라.

[B] 일일은 중군이 친히 돌을 치고 군수 중의 섯겨 올시 역군 등이 쉬거늘 중군수 쯔흔 쉬더니 한 역군이 이로디 “고만 쉬고 어서 가조 중군이 알세라”

하거늘 중군이 쇼왈

“님중군도 쉬니 관겨하라”

한디 역군 등이 그 쇼리를 듯고 일시의 놀노 도라보며 하논 말이

“더욱 감격하니 어서 가자”

하거늘 중군이 그 말을 듯고 더 쉬여 가조 한즉 역군 등이 일시의 니러나니라.

츠후로 이러듯 진심하미 불일 성지하여 일년 만의 ㉦ 필역(畢役)하되 한 곳도 허슈하미 엇논지라 군수를 호케 하고 상급하여 니로디

“너희 힘을 입어 노라 일을 무스 필역하니 못니 갓거 하노라”

하니 역군 등이 비스 왈

“쇼인 등이 장군임의 덕택으로 일명도 상한 군시 업삽고 쯔 상급이 후하시니 도라가오노 그 은덕을 오미불망이로쇼이다”

허더라. 중군이 즉시 필역 장계를 올인디 상이 장계를 보시고 고특이 여기스 가즈를 도도시고 그 지조를 못니 칭찬하시더라.

츠시는 갑즈년 팔월이라 남경 동지스를 보니실시 슈로 슈천리의 일이 흙흙미 상이 근심흐스 조신 중의셔 턱용흐스 니시빅으로 상스를 정흐시고 군관을 무예 가즌 사람으로 써라 하시니 니시빅이 넘경업을 계청헌디 넘중군이 상스의 전령을 들고 즉시 상경하여 상스를 보니 상시 반겨 왈

“노라의셔 날로 상스를 정흐시고 군관을 턱용하라 하시미 그디를 계청흐엿스니 그디 뜻의 엇더 엇더호요”

경업이 디왈

“쇼인 갇흔 용지를 계청하시니 감축 무지하여이다”

호고 인하여 스신을 써늘시 부모 처즈를 니별흐미 슬픔을 먹음고 승선 발항하여 남경의 무스 득달하니 잇지는 갑즈년 추구월이라. 호국이 강남의 조공헌디니 가달이 강승하여 호국을 침범헿거늘 호왕이 강남의 스신을 보니여 구완병을 청하니 황제 호국의 보닐 장수를 가릴시 접반스 황조명이 경업의 위인이 비상흐를 주달헌디 황제 드르시고 즉시 경업을 명초흐스 왈

“이제 조정이 경의 지조를 천거흐미 경으로 구완장을 삼아 호국의 보니여 가달을 치려 호논이 경은 모로미 혼번 호국의 노아가 가달을 파하여 일흠을 삼국의 빗니미 어저호요”

경업이 복지 주왈

“본디 모략이 업스오니 중임을 엇지 당호오며 호물며 타국 지인으로 ㉔ 기려지신(羈旅之臣)이오니 장졸 등이 신의 호령을 듣지 아니호오면 디스를 그릇하여 천명을 욕되게 할가 호노이다”

상이 디회흐스 상방 참마검을 주시며 왈

“제장 중의 군정을 어긴지 잇거든 선참후계하라”

호시고 경업을 비하여 도총 병마 디원슈를 삼으시고 조선 스신을 상스하시니라. 이씨의 경업의 노히 니십오세라 스은 퇴조하여 교장의 노와 제장 군마를 연습홀시 경업이 ㉕ 용복(戎服)을 정제하고 장디의 놓히 안저 손의 상방검을 들고 하령 왈

“군중은 스정이 업노니 군법을 어기는 지면 춤호리니 후회흐미 업게 하라”

장졸이 청영흐미 군중이 엄숙헌더라 츠시 경업이 천조씩 호직호온디 상이 술을 주어 위로하시니 경업이 황은을 감 호고 물너와 상스를 보니 상시 서로 써늘을 슬허헿거늘 경업이 안식을 화히 하여 왈

“화복이 슈의 잇고 인명이 지천하니 조선과 디국이 다르오노 보천지히 막비왕신이니 엇지 죽기를 소양호리잇고”

호고 인하여 호직하니 상시 결연하여 입공 반스호를 천만당부헌더라. 만조 빅관이 성 밧기 노와 전별홀시 경업이 상스와 빅관을 니별하고 형군하여 호국의 이르니 노정이 습천 칠빅니라. 호왕이 구완장 오를 듯고 성 밧게 노와 영접하여 친히 잔을 드러 판디호고 벼슬을 디스마 디장군 도원슈를 호리니 경업이

양국 인슈를 두 줄노 초고 황금 보신갑의 봉투구를 젓게 쓰고 청용검을 빗기 들고 천니 디원마를 타고 디군을 거노려 섬국의 다다라 진세를 베플고 가달의 진세를 바라보니 갑 입은 장쉴 무슈호고 빗는 기치와 놀닌 창금이 히비출 가리위스니 그 형세 가장 웅장호되 다만 ㉖ 항의(行伍) 착난헿거늘 경업이 디회하여 제장을 불너 각각 계교를 가르쳐 군스를 논화 여러 익구를 직회오고 경업이 진전의 노와 백흠을 도도니 가달이 진문을 크게 열고 일시의 니다라 꾸지져 왈

“너희 전일의 여러번 피하여 갇거늘 너는 엇던 사람이완디 감히 접전코져 호는다. 속절업시 무죄헌 군스만 죽이지 말고 쌀이 항복하여 잔명을 보존하라”

호거늘 경업이 응성디미 왈

“나는 조선국 장슈 넘경업이러니 디국의 스신으로 왔다가 청병 디장으로 왔거니와 너희 아직 무지헌 일을 말고 승부를 결하라”

호니 가달이 디로 왈

“너의셔 십비노 더헌 장슈도 오히려 죽으며 항복헿엇거던 무명 쇼장이 감히 큰 말을 호는다”

01

어휘의 문맥적 의미 · 객관식

밑줄 친 ㉑~㉔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㉑: 학문적 성취를 통해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 ㉒: 백성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는 엄격한 통치를 의미한다.
- ㉓: 자신의 능력을 낮추어 표현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말이다.
- ㉔: 타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신하로서의 당당한 기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 ㉕: 적군의 기세가 등등하여 아군이 범접하기 어려운 위용을 갖춘 상태이다.

02

내용의 세부적 파악 · 객관식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임경업은 무과에 장원 급제한 후 전옥 주부로 임명되어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 ② 백마강 만호로 부임한 임경업은 농업 장려와 무예 교육을 병행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 ③ 원두표는 철마산성의 보수가 시급함을 알리며 임경업을 적임자로 왕에게 추천하였다.
- ④ 임경업은 천마산성 성벽 수축을 위해 조정에 장정군을 보내줄 것을 직접 요청하였다.
- ⑤ 명나라 황제는 임경업의 비범함을 직접 확인한 후 그를 가달을 칠 구원장으로 임명하였다.

03

인물의 태도 및 리더십 분석 · 객관식

[A]와 [B]에 나타난 임경업의 행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던 모습이 [B]에서는 국가의 안위를 우선하는 공적 헌신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② [A]의 학문과 무예를 병행하는 수양 태도가 [B]에서 군사들을 교화하여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된다.
- ③ [A]에서 보여준 백성에 대한 사랑이 [B]에서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구체적인 실천 행위로 구체화된다.
- ④ [A]의 선치에 대한 소문은 [B]에서 임경업이 군사들에게 엄격한 군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권위의 원천이 된다.
- ⑤ [A]의 효심과 우애라는 사적 가치가 [B]에서 국가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

04

[보기] 종합 감상 · 객관식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임경업전』은 실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의 생애를 바탕으로 허구적 상상력을 가미한 영웅 소설이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민족적 치욕을 겪은 당대 민중들에게 심리적 보상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주인공이 명나라와 협력하여 외적(가달)을 물리치는 설정은 조선의 군사적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또한 인물의 탁월한 능력뿐만 아니라, 부하들과 고락을 함께하는 덕장(德將)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함으로써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제시한다.

- ① 임경업이 무과 장원 급제 후 위풍당당하게 행진하는 모습은 영웅적 기상을 지닌 인물의 탄생을 부각하는 장치겠군.
- ② 성벽 수축 과정에서 임경업이 군사들과 섞여 직접 돌을 치는 행위는 〈보기〉에서 언급한 덕장으로서의 면모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③ 임경업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참마검을 받고 도총 병마 대원수가 되는 설정은 조선인의 능력이 대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겠군.
- ④ 가달 장수가 임경업을 '무명 소장'이라 비하하는 것은 임경업이 겪게 될 시련을 암시하여 민중들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겠군.
- ⑤ 임경업이 호국(청나라)의 구원병으로 가서 가달을 파하는 전개는 역사적 패배를 문학적으로 극복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투영된 것이겠군.

05

표현상 특징 분석 · 객관식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치 없는 삶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대상과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 ② ㉡: 방어 시설의 물리적 노후 상태를 제시하여 새로운 인물의 투입 명분을 정당화한다.
- ③ ㉢: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적 행위를 지칭한다.
- ④ ㉣: 국가적 과업의 완수를 의미하며, 인물의 통치 역량이 입증되었음을 상징한다.
- ⑤ ㉥: 인물이 처한 상황이 평시에서 전시로 전환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암시하는 소재이다.

06

핵심 개념의 정밀 분석 · 객관식

㉦ '기려지신'에 담긴 임경업의 심리적 상태와 논리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신분이 타국인임을 강조하여, 군령 체계의 혼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 ② 명나라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충성심을 표출한다.
- ③ 가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확신이 부족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 ④ 조선의 사신으로서 명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 ⑤ 호국의 군사들이 자신을 불신할 것을 우려하여, 강력한 군법 집행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려 한다.

07

서술상 특징과 효과 · 객관식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과거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영웅적 면모를 효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 ③ 구체적인 숫자(나이, 거리 등)를 제시하여 서사의 사실성과 구체성을 높이고 있다.
- ④ 꿈이나 초현실적 징조를 활용하여 인물의 미래를 암시하는 복선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기보다 행동과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형상화한다.

윗글에 나타난 '임경업'과 '군사(역군)'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군사들은 임경업의 엄격한 군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성역을 기한 내에 마칠 수 있었다.
- ② 임경업은 군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국가의 보상과는 별개의 사적인 상급을 베풀었다.
- ③ 군사들은 임경업의 출전수범하는 자세에 감화되어, 그를 부모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 ④ 임경업은 군사들의 자발적 휴식을 방임함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는 전략적 태도를 취하였다.
- ⑤ 군사들은 자신들의 공로가 임경업의 승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윗글의 사건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경업의 비범한 재능이 조정의 중신들에게 인지되면서 그의 관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② 국내의 성벽 수축 임무 완수가 대외적인 외교 및 군사 임무 수행의 발판이 되고 있다.
- ③ 명나라 사신으로 가는 길은 험난한 수로를 통과해야 하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었다.
- ④ 가달의 침입을 받은 호국이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자, 조선이 직접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 ⑤ 임경업은 명나라 황제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다국적 연합군의 성격을 띤 군대를 지휘하게 된다.

지문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경업의 모친은 아들의 성공을 보며 과거의 고생을 떠올려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다.
- ② 이시백은 임경업의 재주가 아까워 그를 위험한 사신 길에 보내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 ③ 명나라 황제는 가달의 기세에 위축되어 임경업에게 승리보다는 방어 중심의 전략을 당부하고 있다.
- ④ 가달 장수는 임경업의 명성을 이미 듣고 겉으로는 비하하지만 내심 두려워하고 있다.
- ⑤ 임경업은 타국을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며 조선으로 돌아갈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문맥상 ㉠ '선치'와 가장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상황을 지문에서 찾는다면?

- ① 성첩이 퇴락하여 형용이 없어진 철마산성의 상태
- ② 군법을 어긴 자를 즉시 처단하는 엄격한 군정
- ③ 가달 군대의 대오가 어지러워 질서가 없는 모습
- ④ 백성들이 농업을 등한시하여 굶주림에 허덕이는 상황
- ⑤ 장수와 군사가 서로 이별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

<보기>는 임경업의 리더십을 분석한 현대 경영학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의 장면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현대적 관점에서 임경업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는 부하들의 고충을 세밀하게 살피고(A), 권위주의를 탈피하여 현장에서 실무자들과 소통하며(B), 공동의 목표를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낸다(C).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명확한 보상 체계를 엄격한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D).

- ① 임경업이 군사들의 추고 더우며 괴롭고 갓부를 극진히 염려하는 모습은 (A)의 사례로 볼 수 있겠군.
- ② 역군들이 쉴 때 임경업이 자신도 쉰다며 농담을 건네고 함께 어울리는 장면은 (B)에 해당하겠군.
- ③ 군졸들이 임경업의 태도에 감격하여 '제 일같이 진심'으로 성역에 임하는 것은 (C)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④ 성벽 수축을 마친 후 군사들에게 후한 상급을 내리며 기쁨을 나누는 것은 (D)의 보상 체계를 실천한 것이겠군.
- ⑤ 가달 장수의 도발에 응수하며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는 것은 (D)의 엄격한 원칙을 적군에게 적용한 것이겠군.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과 급제자가 관직에 나갈 때 유가(遊街)를 행하며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다.
- ② 지방관의 치적이 훌륭할 경우 조정에서 그를 중앙의 요직이나 특수 임무에 천거하기도 하였다.
- ③ 국가의 중요한 토목 사업을 수행할 때 군사뿐만 아니라 민간의 장정들을 동원하는 체계가 있었다.
- ④ 조선은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 속에서 군사적 요청이 있을 경우 자국 군대를 전면적으로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 ⑤ 전란이나 위기 상황에서 장수에게 현장 처결권(선참후계)을 부여하여 군령의 엄격함을 유지하려 하였다.

14

세부 조건의 정밀 확인 · 객관식

임경업이 천마산성 성벽 수축 임무를 수행할 때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조정에서 보낸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 임경업은 이미 토졸들과 함께 공사를 시작하였다.
- ② 임경업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군사들에게 휴식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며 독려하였다.
- ③ 성벽 수축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군사들이 장군의 덕택이라 칭송하였다.
- ④ 임경업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사들에게 지급할 술과 고기를 직접 마련하였다.
- ⑤ 성벽 수축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필역하는 데 총 3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5

어휘의 함축적 의미 · 객관식

지문의 맥락상 ㉠ '속절읍시'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발언은?

- ① 임경업: "본대 모략이 없사오니 중임을 어찌 당하오며"
- ② 임경업: "어찌 죽기를 사양하리잇고"
- ③ 가달 장수: "속절없이 무죄한 군사만 죽이지 말고"
- ④ 군졸들: "적재 자모를 잃음 같도소이다"
- ⑤ 임경업: "황감 무지하여이다"